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프랑스 Telecom Ecole de Management 교환 학생 후기**  
**(Institut Mines-Télécom Business School)**

전기정보공학부 박성현

-목차-

- 출국 전 준비 과정
- 입국 후 가는 방법
- TEM 행정 처리
- TEM 수업 후기
- TEM 학교 생활
- 파리 생활
- 후기

Institut Mines-Télécom Business School 으로 학교명이 제가 다니던 중에 변경됐으나, 편의상 TEM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 1. 출국 전 준비 과정

우선 TEM에 제출해야 될 교환학생 서류가 있습니다. 여권 사본, 보험증 (해외 유학생 보험 단기로 싸게 파는 게 많으니 아무거나 신청해서 영문 인증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적표, 강의이수 계획표(learning agreement), 사진, 이력서, cover letter 등이 있습니다. Cover Letter는 공과대학 대외협력실 담당 선생님이 작성해 주셨으니 따로 교수님에게 부탁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Learning Agreement의 경우 일단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강의를 전부 수강하겠다고 체크하시고 후에 수업을 듣다가 안 맞으시면 드랍하면 됩니다. Campus France와 프랑스 대사관 비자 신청하고 수령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학기 중에 힘드시겠지만 빨리 빨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프랑스 대사관의 일 처리는 한국이 아니라 프랑스 시간으로 흐릅니다.

TEM 행정실로부터 합격 서류를 받으시면 Campus France에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www.coree.campusfrance.org](http://www.coree.campusfrance.org)에 자세한 비자 신청 절차가 나와있으므로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력서 및 학업동기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행정 처리 비용이 30만원** (\*2018년 기준)입니다. 면접할 때 저의 경우 학생들이 많아 20명 정도를 한꺼번에 면접을 진행하였는데, 면접 시간이 짧아서 저한테는 질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질문과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 불어를 못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거 같았지만 불어가 안 되면 영어로라도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Campus France에서 면접을 보는 날 대사관 영사과 비자 면접 날짜를 신청해야 하는데, 비자 면접을 신청할 수 있는 컴퓨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면접시간보다 일찍 가서서 대기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한 번 신청하고 나서 후에 다른 사람이 일정을 비우면 대사관 영사과 면접 날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시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영사과 면접 셀 번호** ex- SEL20181377.....는 꼭 사진이나 메모로 남겨두셔야 후에 일정 변경하실 때 등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대사관 영사과 면접할 때 구비해야 될 서류는 대사관 홈페이지나 Campus France에서 면접 보실 때 알려주실 거니 잘 챙겨가셔야 하며, 이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 영문 원본입니다. 제가 신청할 때는 **체류 개월 x 80만원/월** 이었으나, 이 또한 자세한 최소 금액은 <https://kr.ambafrance.org> 대사관에 나와 있을 테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학생비자 신청 접수료가 50유로**이므로 매일 환율에 따라 KRW 가격이 변동되므로 카드말고 현금으로 지불하실 땐 주의 바랍니다. 대사관에서는 학생이 비행기를 예약한 날짜를 고려를 안 하고 행정 처리를 하므로 대사관 면접 후 비자 수령까지 최소 3주 이상 걸리니 여유 있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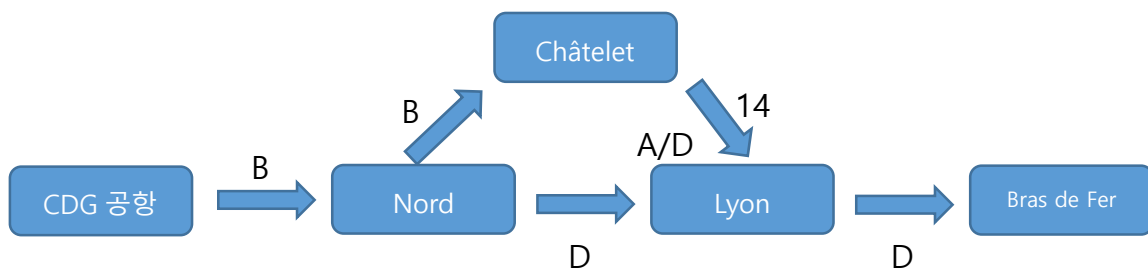
TEM은 기숙사를 제공하므로, 기숙사를 신청하시는 게 훨씬 생활하시는 데 편할 겁니다. 400유로 유로부터 800유로의 스튜디오 방이 있으나, 대부분의 외국인 학생들은 U1-U4의 400유로 방을 선택합니다. 저는 U4건물의 2층 (한국의 3층)에서 거주하면서 큰 불편함은 없었지만 다른 교환 학생의 경우 방에 인터넷 선이 퇴거할 때까지 고장나는 등 어느 정도의 시설 복불복이 있습니다.

## 2. 입국 후 가는 방법

파리 샤를 드골 공항(CDG)으로 입국했을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입국 첫 날에는 길을 못 찾을 가능성도 크며, 학교에서 바로 인터넷을 연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입국 후 하루나 이틀쯤은 로밍으로 생활하시기를 권합니다. 샤를 드골 공항으로 프랑스에 입국하셨을 때 갈 수 있는 교통 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RER 이용
2. 우버 이용
3. 프랑스 내 지인의 자동차 이용

### ● RER 이용



\*CDG에서 Gare du Nord까지는 RER B라인을 타야 하는데, Gare du Nord까지 가는 노선은 한 가지이므로 크게 헷갈리시지 않을 겁니다. Gare du Nord에서 Gare de Lyon까지 가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있습니다. 짐이 많으므로 Lyon까지 직행으로 가는 RER D를 타실 수 있으면 타시는 걸 권합니다. Lyon에서 학교 근처 역인 Le Bras de Fer 역까지 가는 방법은 RER D를 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때 Lyon에서 타는 RER D가 전부 같은 노선이 아님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종착지가 크게 Melun, Corbeil Essonnes, Malesherbes로 나뉘는데, 이때 지나가는 역들이 다 다르므로 꼭 Evry-Courcouronnes와 Le Bras de Fer를 지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Le Bras de Fer에서는 걸어서 3분 거리이므로, 찾는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장점: 15유로 이내로 학교까지 이동 가능하며, 자리가 많기 때문에 앉아서 갈 확률이 "조금" 크며 2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단점: 캐리어에 여러 짐들을 들고 복잡한 파리 메트로를 헤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위험합니다. 또한, Lyon 발 Le Bras de Fer 역 도착하는 RER이 저녁 10시 반- 11시 쯤이면 끊기기 때문에 저녁 늦게 도착하는 비행기면 애매하게 RER이 Juvisy역까지 가고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버를 불러서 가야하므로, 입국 한 날에는 로밍이라도 켜 놓은 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 ● 우버 이용

우버를 이용하실 때는 평점이 높고, 후기가 많이 쌓인 드라이버를 선택하시길 바라며, 자신의 집의 개수나 크기에 따라 차량 크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른 한국인 교환학생들과 같이 우버를 이용해서 인당 100유로 살짝 안 되는 금액으로 TEM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장점: 편하고 안전하고 확실하고 RER에 비해 빠른 시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단점: 미니멈 100유로 이상의 가격.

- **프랑스 내 지인의 자동차 이용**

프랑스 내 지인의 차를 얻어 탈 경우입니다만, TEM이 Evry라는 île-de-France 존5에 위치한 외진 동네이기 때문에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면 힘들 겁니다.

### **3. TEM 행정 처리**

TEM에 도착하고 나면 처리해야 될 행정들이 몇 있습니다. 크게 OFII, CAF, 은행 계좌 개설, 인터넷 개통, 보증금 맡기기, 교내 학생 등록 신청 등이 있습니다.

**OFII**란 한국에서 대사관 면접시 작성한 OFII 서류나 여권에 찍힌 프랑스 학생 비자와는 별개로 프랑스에 입국 후 90일 이내에 OFII 스티커를 받아 비자의 효력을 확정하는 겁니다. OFII 스티커 미부착시, 프랑스 입국 후 90일 이후에 비행권 국가 방문하고 프랑스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차후 프랑스 비자를 재신청할 때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므로 이런 운 나쁜 케이스도 있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EM의 외국인 학생 OFII 담당 직원이 저희의 OFII 신청서를 받고도 한국인 교환 학생들의 OFII를 제때 신청하지 않아 (터키 학생의 OFII 신청은 제대로 진행됐습니다), 90일이 다 되는데도 OFII 서류 도착 문자 메시지조차 못 받아 다시 담당 직원에게 항의를 하였더니 TEM의 OFII 담당 직원이 본인도 OFII 행정을 처리하는 곳이란 연락이 안 된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함으로써 오히려 귀국하기 한달 반 전쯤에는 그냥 포기하라는 말을 하셔서 결국 귀국할 때까지 OFII 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였습니다. OFII를 학교 OT때부터 일주일 단위로 계속 문의하셔서 OFII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CAF**란 프랑스 정부에서 학생들을 위해 주택보조금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CAF의 경우 필요한 서류의 종류가 너무 많고, 번역 공증에 필요한 금액도 꽤 많이 나갑니다. 또한 CAF는 OFII를 못 받았을 시 다시 반환해야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을 하실 지 말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은행 계좌 개설**은 TEM의 경우 Société Générale 은행과 외국인 학생과의 미팅을 주선해 주기 때문에 불어를 못하더라도 영어로 계좌 개설하는 걸 은행 직원이 도와드립니다. 문제는 계좌 만들겠다는 편지 오는데 일주일, 계좌는 만들었다는 편지 일주일, 카드 만들었다는 편지 일주일, 카드 비밀번호 편지 오는데 일주일 등등 카드를 쓰는데 까지 약 한달 넘게 걸리므로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Société Générale 은행 계좌는 차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꼭 이 프랑스 계좌로 입금되므로,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의 경우** 교내의 Foyer 건물에 있는 Minet 동아리에 방문해서 인터넷을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요금은 월별로 계산되므로, 나갈 일정을 고려해서 신청을 해야되며, 유선과 무선(WiFi)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유선의 경우 속도는 프랑스임을 고려하면 만족스러운 편이었으

며, 와이파이의 경우 저는 방에서 자주 끊겨서 이용하는데 불편했습니다. 참고로 방의 위치에 따라 와이파이가 아예 안 잡히는 방들도 몇 있고 먼저 방에 랜선 케이블 연결하는 곳이 있는지 와이파이가 잘 잡히는지 확인하시고 인터넷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의 경우** 500유로를 기숙사에 맡겨야 하는데, 후에 퇴거하실 때 방에 고장난 부분이나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화장실 전등 두개가 나가서 퇴거할 때 화장실 전등 교체 비용에 체크 비용 등등 해서 70유로가 보증금에서 차감되었습니다. 월세의 경우 매달 말(25일쯤)부터 다음달 초(6일쯤)에 지불하는 방식인데, 마지막 퇴거하는 달의 경우에는 하루당 25유로로 계산되므로 월 중후반에 퇴거하실 계획이시면 종강하자마자 퇴거하셔서 파리 시내 내의 저렴한 숙소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증의 경우** OT에서 나눠줍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학생들이 OT에 참여하는데, 이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에 자주 겹치므로 인사 정도는 하고 안면을 트는 게 좋습니다. OT때 교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번을 나눠주며, 카페테리아에서 결제할 수 있고 프린터기 이용 및 교내 건물 출입 시 필요한 학생증을 발급해줍니다. 저의 경우 학생증처럼 생긴 카드와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흰색 카드 하나를 줬는데, 학생증처럼 생긴 카드는 아무 기능이 없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기능은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흰색 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인 친구 카드를 보니 그 친구는 학생증이 하나였고 제대로 작동되었지만, 교환학생들의 경우 다들 저처럼 두개의 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 4. TEM 수업 후기

저는 TEM에서 Business Plan Challenge, French as a Foreign Language, Law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IS Project Management, Relational Data Bases, V2A Corporate Finance, V2A Sales and Business Development 7 과목을 수강하였으며, 총 26 ECTS를 취득하였습니다.

| *( ) : ECTS   | 후기  |
|---|---|
| <p align="center"><b>Business Plan Challenge</b><br/>(5)</p>      | <p>비즈니스 플랜 챌린지의 경우 특이하게 교내 창업 경진 대회 비슷한 것을 반강제로 수강 신청하게 해서 (원하면 드랍할 수 있습니다) 수백명의 학생이 TEM, TSP, ENSIIE 인근 그랑제꼴에서 팀을 이뤄서 경쟁하는 수업입니다. 수업은 강의 OT와 외부 전문가들 강의를 수강하는 것과 창업 아이디어 PPT 제출만 하면 끝입니다. 외부 전문가 강의를 불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알아듣기는 힘들었습니다. 제 팀이 제출한 아이디어는 예선에서 떨어져서 그 뒤에 발표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1등팀은 상품으로 아이패드를 지급하고 창업 지원금 및 지원을 해준다고 했으나 평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p> |
| <p align="center"><b>French as a Foreign Language</b><br/>(3)</p> | <p>불어를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어를 가르쳐주는 수업입니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간단한 불어 능력을 인터넷으로 시험을 본</p>  |

|  |  |
|--|--|
|  | <p>후 점수에 따라 반을 분반합니다. 저의 경우 불어를 하나도 몰랐기에 기초반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초반의 경우 abcd부터 가르치며 간단한 자기소개 및 몇몇 불어 기본 표현, 길 묻기 등을 끝으로 강의가 끝났습니다. 매시간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지만 과제도 거의 없는 수준이었으며 시험도 매우 쉬워서 뭔가 별로 배운 게 없는 거 같아 아쉬움이 좀 남는 수업이었습니다. 차라리 개인적으로 불어를 공부하신 뒤에 기초반 다음 단계를 수강하시는 게 불어를 익히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p> |
| <p><b>Law for Communication and IT</b><br/>(2)</p> | <p>통신 판매 및 쇼핑몰을 운영할 때 지켜야 하는 법을 배우는 과목이며, 배우는 내용은 크게 없는 과목입니다. 교수님의 설명도 몇 년전에 만든 교재를 그대로 읽는 것이고, 매번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의류 쇼핑몰을 들어가서 30분 정도 해매는 걸 반복하십니다. 과제는 없으며, 시험도 팀을 이뤄 자유롭게 며칠간 답을 작성하는 방식이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과목을 이수 계획표에 넣지 않았는데 입학하니 자동으로 제 Moodle에 (TEM의 eTL) 추가된 과목이었습니다.</p>        |
| <p><b>IS Project Management</b><br/>(2)</p>        | <p>IS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며, 특히 IT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관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본 과목은 온라인 강의이며, 매주 과제와 함께 저번 과제 해답이 업데이트됩니다. 원하면 팀을 이뤄서 같이 과제를 진행해도 되지만 저는 그냥 혼자서 진행했습니다. 강의 당 길이는 최대 한 시간 정도이고, 과제의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과목은 아닙니다. 시험은 시험장에 가서 보는 방식이고, 과제랑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므로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p>      |
| <p><b>Relational Data Bases</b><br/>(2)</p>        | <p>간단하게 데이터 베이스를 디자인하는 방법을 배우며, 흔히 공대에서 배우는 밑바닥부터 DB를 짜는 수준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DB의 아웃라인만 디자인하고 DB간의 관계도를 구축하는 정도만 배웁니다. 실습시간이 있는 유일한 과목인데, 실습시간에는 이론 수업 때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과제는 실습때 제출해야 하며, 시험은 아주 간단한 MySQL 손코딩을 봅니다.</p>   |
| <p><b>V2A Corporate Finance</b><br/>(6)</p>        | <p>재무제표 분석 및 다양한 기업의 케이스 리뷰를 하는 수업입니다. 교수님이 총 3분이 파트를 나눠 가르쳤으며 경영 쪽 수업을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이해하는 데 고생했고, 재무제표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노하우가 없어서 많이 헤맸습니다. 중간에 케이스 리뷰 발표를 팀을 이뤄서 해야하고 쪽지 시험도 봤으며, 기말 때는 지필 기말고사와 함께 모의 M&amp;A 협상을 위해 기업 재무제</p>  |

|  |   |
|--|---|
|  | <p>표 분석 및 가치 평가를 PPT로 제작하고 buyer와 seller로 팀들을 나눠서 기업가치를 협상해서 M&amp;A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배경 지식이 없어 발표 준비나 수업을 듣는데 힘들었지만, 유일하게 뭔가 배운다는 느낌이 드는 수업이었습니다. 참고로 기말 때는 계산기를 들고 와도 되지만, 계산기를 안 들고 가도 계산이 많이 더럽지 않아서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p>   |
| <p><b>V2A Sales and Business Development (6)</b></p> | <p>마케팅을 할 때의 과정을 배우고, 소비자나 다른 회사와 협상을 할 때 어떤 자세나 어떤 말을 꺼내야 하는 지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수업은 중간중간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학생들끼리 역할을 정해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한 번 적용해 서로 협상을 한 뒤,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쪽지 시험을 2번 봤지만 최종 성적에 들어가는 건 아니며, 기말고사 때 쪽지 시험에서 전부 그대로 출제되어 어렵지 않았습니다.</p> <p>참고로 본 수업은 처음에 다른 교수가 불어로 진행하려 했다가 많은 외국인 학생들의 반발로 인해 첫 시간 이후 다른 교수로 교체되어 PPT, 평가 방식, 시험 횟수 등 전부 다 갈아엎어졌기에 후기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p> |

총평: ECTS로 보면 많은 학점을 이수한 거 같아 바쁜 학기를 보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강의가 두 달 정도만 진행되고, 종강하면 다른 수업이 개강하는 형태이며 수업이 매주 일정한 시간에 있는게 아니라 매주 스케줄을 일정표를 통해 확인해서 강의실과 수업이 언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하루에 수업을 많이 들어 봤자 2개 (7시간)정도였습니다. 과제나 시험 부담이 없는 과목이 대부분이기에 많은 과목을 수강해도 큰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5. TEM 학교 생활**

Welcome이라는 교내 동아리가 있는데, 이 동아리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잡다한 기숙사 생활 문제부터 프랑스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으므로 입국 전부터 그룹에 참여해서 글들을 읽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올리면 됩니다. welcome 동아리를 통해 침구류를 싣 금액에 대여할 수 있는데, 담요의 질이 안 좋아 매일 바닥과 옷에 담요의 작은 부스러기들이 붙습니다.

TEM은 파티를 정말 자주 합니다. 특히 welcome dinner는 welcome 동아리에서 주최하는 외국인 학생들과 동아리원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디너 파티이며, 무료이고 다들 연고가 없는 학생들이라 참여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나 금요일날에 Foyer의 바에서 파티가 열리는데, 학생회 투표 전의 파티는 규모도 크고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므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파티에 가서 같이 노는 것도 좋습니다.

밤이나 낮에 기숙사에서 화재 경보기가 자주 울리는데, 원인의 대부분은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 연기가 갑자기 많이 발생해서 화재 경보기가 작동되는 경우거나 실내에서 누가 흡연을 한 경우 이렇게 크게 두가지입니다. 특히 파티를 한 날 새벽에 자주 울리는데, 새벽 3시에 화재 경보기가 울려도 3분 정도 후면 멈추니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택배는 7시부터 7시 30분까지 기숙사 정문 들어오자마자 있는 창고에서 직원에게 택배 수령증을 보여주면 택배를 줍니다. 딱 저 시간 이외에는 택배를 수령할 수가 없으므로 참고바랍니다.

수업이나 과제가 많은 편도 아니고 동네에 특별히 할 게 없는 심심한 곳이다보니 대부분의 애들이 모여서 수다 떨거나 동아리 활동하는 걸로 시간을 보냅니다. 교내에 농구장하고 헬스장이 있고 학교 근처에 Parc des Coquibus라는 공원도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서도 시간을 보내지만 여전히 24시간을 보내기엔 부족하니 취미거리 하나 들고 오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학생식당, 스스로 요리 그리고 외식으로 나뉩니다. 우선 학생식당의 경우 평일 점심 저녁 (금요일 저녁은 휴무)에 식사를 할 수 있으며, entrée, main, dessert까지 다 먹으면 보통 6-7유로가 결제되며 main 한 접시만 먹으면 3유로 내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 약 3가지의 메인요리를 제공하므로 학생 식당은 저녁보단 점심에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나라의 음식은 급식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학식을 자주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았습니다. 스스로 요리를 해먹을 경우에는 Evry-Courcouronnes역 근처에 있는 까르푸(Carrefour)를 방문해서 식재료를 구매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외식 물가나 집세는 서울보다 비싸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서울보다 싼 편이라 해 먹는 것도 큰 부담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식을 하는 방법인데, 식사를 하러 파리로 가지 않는 이상 TEM이 있는 Evry란 동네에는 마땅한 식당이 없어 패스트 푸드 점이나 프렌차이즈 식당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학교 바로 앞에 위치한 G20 마트 옆에 있는 햄버거/피자 패스트푸드점이 가격대비 맛/양이 괜찮고 그 옆의 정육점에서 구운 치킨을 사먹을 수 있으며 까르푸에 가면 버거킹, 맥날, KFC가 다 있고 Evry 성당 옆에 OTACOS라는 타코 프렌차이즈 식당도 있으므로, 프렌차이즈보단 다양한 곳을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6. 파리 생활

### - 교통

Paris로 가는 관문인 Gare de Lyon까지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Le Bras de Fer에서 출발할 경우 <https://www.transilien.com>에 따르면 38분이 소요됩니다. 문제는 Paris Lyon역까지 가는 배차 간격이 길다는 단점이 있어서 보통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해서 평균 내면 1시간 살짝 넘습니다. 파리로 가는 편도 티켓은 7.1유로이므로 매우 비싸기 때문에 Evry-Courcouronnes에 가서 Navigo를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참고로 거주 증명서가 있으면 Navigo를 거주자용으로 공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숙사 증명서 같이 들고 가셔야 됩니다. Navigo 1-5존 한 달 이용권은 75유로이고, 6

개월 이용권은 한 달짜리를 6개월동안 끊는 것보다 더 싸므로, 파리 시내로 얼마나 자주 나갈지 보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도시나 해외 여행을 할 경우 버스는 Bercy역의 Flix Bus역, 비행기는 CDG, Orly 공항 그리고 기차는 Gare du Nord나 Gare de Lyon역에서 보통 탑승합니다. Bercy에 있는 플릭스 버스 역하고 Orly 공항 가는 길이 조금 복잡하므로, 이 둘은 처음 갈 때 시간 여유를 좀 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프랑스는 파업의 국가답게 교통수단이 자주 파업하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을 했을 때는 전국 철도 파업, 메트로 파업, CDG공항 파업, 에어 프랑스 파업 등등 많은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때마다 자신이 예약한 표가 그대로 운행하는 지 확인하시고 다른 교통수단의 파업에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 문화 생활

파리에는 다양한 박물관과 공원과 함께 많은 관광 명소가 있어서 방문할 곳이 많습니다. 학교 수업이랑 과제가 부담되지 않으므로, 파리 시내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으므로 파리 다양한 곳들을 여유롭게 멍 때리면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다니는 것도 외롭지 않아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답게 다양한 전시회와 공연 등이 열리고, 많은 유명 DJ, 팝스타 등이 방문하는 도시이므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월드 투어 스케줄을 미리 알아보고 파리나 이웃 국가면 방문해서 콘서트를 즐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파리에는 파인 레스토랑부터 일반적인 비스트로까지 다양한 가격대와 메뉴의 식당이 있으며 파리 오페라 역 근처에 많은 한/중/일 식당과 한인 마트인 K-mart가 있고, 올림피아드 역 근처에도 많은 베트남 음식점들이 있기 때문에 양식이 질릴 때마다 방문했습니다.

### - 치안

최근 들어 프랑스에서 테러가 자주 일어나 유명 관광지 근처에는 꼭 군인들이 실탄을 장전한 채 경비를 돌고 있으며, 많은 곳에서 심지어 까르푸에서도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환학생으로 있을 당시 니스 테러 및 오페라 칼부림 테러를 비롯해서 많은 사건이 발생해서 치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어두운 골목을 피하고, 10시 전엔 Lyon역에서 RER을 타서 학교로 돌아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Corbeil-Essonnes 역 근처에서 실시간으로 연행되는 사람이 경찰에 저항하는 것도 목격해서 Evry 학교 근처와 파리 시내 외에는 밤에 잘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 7. 후기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의 프랑스에서의 생활은 대학에 진학한 이후 처음으로 여유를 가지며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시기였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준 공과대학에 이 후기를 통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